

## 보 도 설 명 자 료

(17.9.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미안하다” 편지 보낸 산업부장관 시큰둥한 반응만 부른 까닭은?  
(9.26, 한국경제)

### 1. 기사 내용

- ☐ 한국경제신문은 섬유업계 간담회(8.11일) 이후에 ‘전기료 문제 등은 해결이 어렵다’는 내용의 산업부장관 편지를 소개
- ☐ 산업부장관의 업계 소통 의지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간 간담회 이후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에 ‘보여주기식 행사’에 그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

### 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☐ 지난 8.11일 섬유업계 간담회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담회하게 경청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며,
  - 전기요금 경감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, 최저임금제도 개선, 노후 설비교체 지원, 기술개발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논의되었음
- ☐ 동 건의사항들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현재 수요파악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, 고용부, 미래부, 중진공 등 관계부처(기관)과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림
- ☐ 한편, 산업부는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중이며, 여기서 논의된 건의사항들의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양병내 과장 (044-203-4290)  
섬유세라믹과 이용대 서기관 (044-203-4294)